京鄕新聞

發行兼編輯人 鄭九鎬
印刷人 車鍵誠
主筆 尹相哲
編輯局長 張明錫
서울特別市 中區貞洞 22 【郵便番號 100】
交換代表 (720)5151·6151
編輯局 (723)9855·9856
廣告接受 (723)8541·8542
購讀申請配達事故 (722)2227·9090
購讀料 月定 2,700원 1部 130원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등가구전문점 木林房
☎(568)1895 영동시장네거리
●한국라탄직매장●

오늘의主要記事

韓·日經協20년… 그實像·虛像 …3面
附價稅8·3%늘려申告해야 …5面
核벼락 恐怖에 떠는 地球村 …4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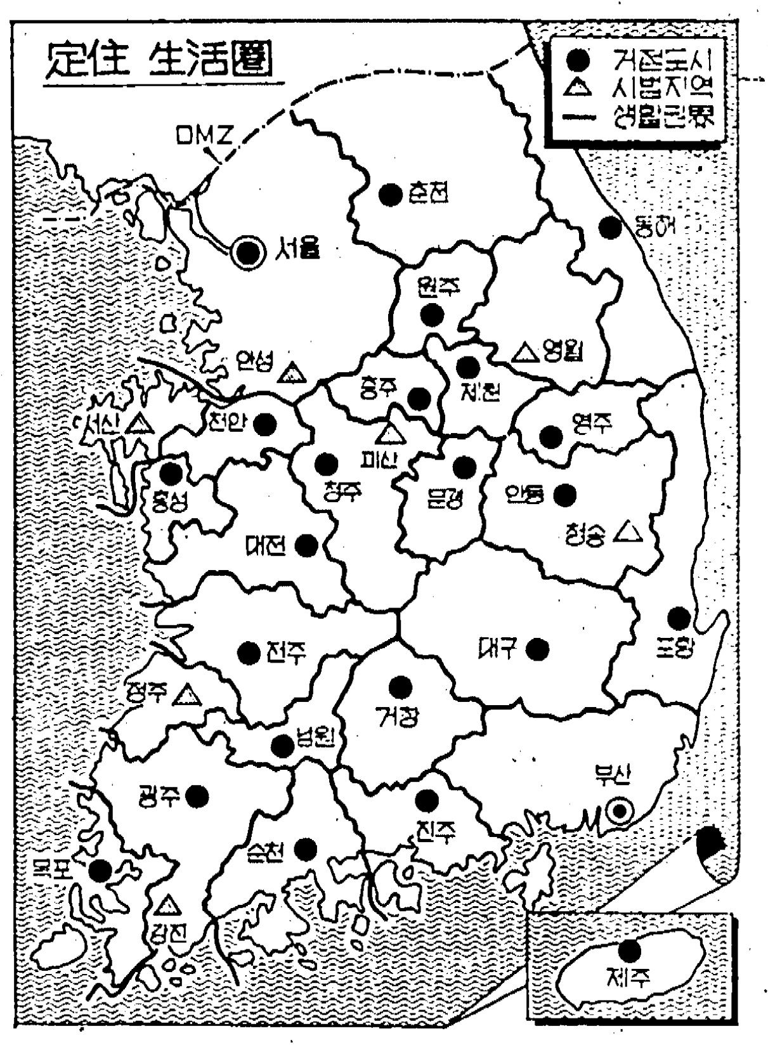
井州·安城·寧越·槐山·青松·瑞山·康津

定住生活圈 7곳 示範개발

生計·教育등의 綜合기능 醫療·慰樂시설등도 完備

內務部, 全國 28곳으로 擴大개발

내무부는 10일 경기도 安城군(이상평야지역), 강원도 寧越, 충북槐山, 충남瑞山, 전북井州시, 전남康津군(이상산간지역)등 7개 시·군을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시범지역으로 설정, 올상반기중에 각종 기본시설등을 투자,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들 7개 시범지역개발에이어 경남晋州시등 성장거점도시로 정주권개발을 확대, 전국을 28개 정주생활권(지도)으로 구획할 방침이다. 정주생활권은 일정지역에 행정·경제·사회·문화등 종합기능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그지역을 떠나지않고도 생활편익을 누리며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도 큰걱정없이 살수있도록 하기위한 생활권역이다.



내무부의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따르면 이·동단위에는 일상생활을위한 1차적 기본수요와 영농권·협동생활권등을 갖춘 마을권을 형성하고 읍·면단위에는 통학·구매·[illegible]을 위한 시설과 일상생활을 위한 2차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읍·면권을, 시·군단위에는 경제·사회·문화적활동의 종합기능과 정보·교통·유통등 각종시설을 설치, 도시와농촌간을 잇는 생활권을 형성, 이들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게된다.

즉 이·동단위가 마을권을 형성하고 마을권이 읍·면권을, 읍·면권끼리 1개의 지역생활권을 형성, 이지역안에 교통통신·상업유통·교육문화·사회복지와 각종 스포츠시설등을 갖추도록 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마을권에는 1차적 기본생활요건인 산매점·마을금고·공동창고와유치원·국민학교·순회진료소·경로당·탁아소등이 시설되고 읍·면권에는 우체국·정기시장·연쇄점·신용금고·중·고교·의원·보건지소·노인복지회관·체육관·공원등이 들어서게된다.

그리고 이지역의 핵이 되는 정주생활권에는 교통통신의 편의를 위해 각지방도 포장과 종합터미널, 시내버스, DDD전화를 가설하고 상업유통수단으로 상설시장, 백화점, 슈퍼마킷, 은행지점, 유통센터등을 갖추게된다.

교육문화시설로는 전문대학 시민회관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로는 종합병원 보건소 직업보도소와 스포츠, 여가시설로는 공원 공설운동장 유원지등을 갖추게된다.

정주생활권은 일본에서도 지난 79년부터 「제3차전국總合개발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현재 2백~3백여개의 정주권이 설정돼있다.

定住생활권의 중심이될 28개 성장거점도시는 다음과 같다. ▲서울▲원주▲춘천▲동해▲영월▲안성▲대전▲천안▲홍성▲서산▲청주▲충주▲제천▲전주▲정주▲남원▲광주▲목포▲강진 ▲순천 ▲대구▲문경▲영주▲안동▲포항▲부산▲진주▲거창▲제주

경제·효율위주「據點」탈피
地域間 균형開發에 力點

(解說) 내무부가 이번에 7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한것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지방정주생활권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데 뜻이 있다.

정주권의 도입은 지난날의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거점개발이 초래한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이에따른 서울·부산등 대도시지역의 인구및 산업의 집중을 막아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것.

물론 이들지역에 교통통신시설이나 상업유통·복지시설등 모든 시설이 일시에 설치되는것은 아니다. 이들지역에 이미 설치돼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해 가면서 마을단위로부터 상향식으로 지역생활에 필요한 시설등을 연차적으로 설치, 하나의 탄운을 형성함으로써 타지역에 가지 않고서도 의료에서부터 오락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욕구를 충족할수 있도록 한다는것.

따라서 정주생활권의 핵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산환경이 일치되는 지점으로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이 상호 연계돼 생활권역을 이루게 된다. 때문에 정주생활권은 개발권역인 동시에 주민의 제반생활편익 서비스시설의이용권역이라고도할수있다. 【元】

말聯首相 연내訪韓

【콸라룸푸르=AP聯】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지아수상은 대외관계강화를 위해 올해 韓國등 12개국을 공식방문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마하티르 수상은 이날기자회견에서 금년 방문예정국가운데는 한국외에 日本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멜다이브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및 東歐국가들이 포함돼있다고 말하고 우선 오는23일부터 30일까지 日本을 방문할것이라고말했다.

部處인사交流 대폭擴大

올해 5百~6百명
民願·小職列등에 重點

정부는 행정부처간 공무원인사 교류의 인원과범위를 대폭확대하는한편 인사교류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총무처당국자는 10일 「지난해 실시한 부처간인사교류가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올해부터 이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하고 「우선 교류인원은 민원부서와 稀少및 小職列에 중점을둬 지난해 2백20명에서5백~6백명으로 2배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류대상범위도 특수인사관리되는 認·許可, 조세검사업무등 3백88개업무에 대해서는 6급이하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조사를 마친 직무분석결과와 정부기능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법무·외교분야등 정부주요업무분야별 교류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또 『지난해의 중앙과 지방관련부서, 중앙부서상호간 교류에서 올해는 정책과 집행부서, 종합기관상호간및 예산·법제·세무등 부처공통업무분야별 교류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이위원회에서 교류시기와 규모, 대상자 선정기준등을 결정할수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올해 2차례 정도로 나누어 인사교류가 실시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인사교류와 아울러 부처간 승진불균형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3년(일반직3급)및 4년(일반직4·5급)으로 되어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현실에 맞게 6~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韓·日經協 文書化싸고 異見

나까소네 來韓앞두고 막바지折衝難航

聲明·議事錄등 反映돼야 韓國
숫자·期間明示 선례없다 日本

韓·日양국은 나까소네(中曾根)日本수상의 訪韓을계기로 타결이 확실시되는 40억달러 經濟協力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明文化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최종절충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韓國측은 그동안 양국공동성명에 40억달러 經協의 기본정신과 구체적숫자, 공여기간등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있으나 日本측이 관례와 국내법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표시, 일단 共同성명에 經協문제타결에 대한 양국의 기본정신을 함축적으로 표시한다는데만 의견의 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韓國측은 2년간 끌어온 韓·日經協 문제가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에 정치적인 의미를주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새로운 韓·日관계 설정이라는 역사적의미를 더욱 크게하는것이기때문에 이를 양국외상의 합의의사록등 外交文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측은 中共, 말레이지아등과의經協협상에서도 선례가 없으며 日本의 單年制 예산제로서는 국내정치상 文書化에는 응할수없는 입장이라고 반대,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日本측은 또 外相회담합의의사록에 경협의 구체적내용을 명시하자는 韓國측의 요구에대해 말레이지아의 경우처럼 新聞공동발표문등의 형식으로 할것을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韓·日양국은 또 40억달러의 經協차관제공기간을 87년까지 앞으로 5년간으로 한다는데는 합의했으나 日本측은 교섭의 진행기간이었던 82년도를 이 공여기간에 포함시켜 7년간으로 하고 그기간에 대한 표현도 88년도「서울 올림픽에 對하여」라는 식으로 함축성을 둔것을 요구, 이에대한 마지막 절충을 계속중이다.

특히 日本측은 5년간의 연차별 공여내용을 합의의사록에 명기하자는 韓國측 주장에대해 日本의 국내사정과 韓國측이 제시한 11개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1차연도의 공여액만을 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韓國측은 지난5일 來韓한 기우찌(木內昭胤)日외무성 亞洲국장과 6일하오 일시 귀국한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를통해 韓國측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韓國측은 이번 나까소네수상의 訪韓과관련, 經協에관한 내용이 어떤형태로든 外交文書로 남지않을경우 장래의 韓·日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점을 분명히 한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당국자는 「日本측이 文書化에 아직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12일열릴 外相회담에서나 최종결론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政經文化

나까소네 내일來韓

下午3時45分 着韓聲明발표않기로

나까소네(中曾根康弘)日本수상은 11일 하오 3시45분 金浦공항착, 來韓한다고 10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하오 청와대로 全斗煥대통령내외를 예방, 1차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12일상오 청와대에서 1시간 30분동안 제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제2차 정상회담은 단독회담에 이어 양국 外務장관등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으로 열리게된다.

한편 李範錫외무부장관과 아베(安倍)日本외상은 12일상오9시 외무장관실에서 外相회담을 갖는다.

이날 外相회담에서는 공동성명발표 문제등 韓·日현안에관한 문제가 논의된다.

나까소네首相의 訪韓에는 아베(安倍)외상, 다께시다(竹下)대장상등 21명의 공식수행원과 기자단38명등 모두 90명이 수행한다.

그런데 나까소네수상은 당초 金浦공항도착시 발표할 예정이던 도착성명을 발표하지않기로 했다고 10일 外務部관계자가 전했다.

나까소네 日本수상의 滯韓일정과 수행원 명단은 다음과같다.

◇11일▲하오3시45분 도착, 공항환영식참석▲全斗煥대통령예방, 제1차정상회담▲全대통령주최 공식만찬

◇12일▲상오 국립묘지참배, 충혼탑헌화▲丁來赫국회의장예방▲金相浹국무총리예방▲제2차정상회담▲하오金총리주재 오찬(新羅호텔)▲기자회견(新羅호텔 다이내스티홀)▲공항환송식▲4시離韓.

◇공식수행원명단▲마에다(前田)駐韓대사내외▲후지나미(藤波孝生)내각관방부장관▲야스이겐(安井謙)전참의원의장▲우노(宇野宗佑)중의원의원▲미하라(三原朝雄)중의원의원▲이스루기(石動道行)참의원의원▲나까무라(中村弘海)중의원의원▲오꾸다(奧田敬和)〃▲나까지마(中島敏次郞)외무성심의관▲기우찌(木內昭胤)외무성亞洲국장▲다나까(田中誠一郞)經企廳조정국장▲야나기(柳健一)외무성경제협력국장▲오오바(大場智滿)대장성국제기구국장▲나까자와(中澤忠義)통산성통산정책국장▲가미와다(上和田義彦)총리대신 비서관▲하세가와(長谷川和年)〃▲이와사끼(岩崎八郞)〃▲오구라(小倉和夫)외무성 北東亞과장

한편 나까소네首相의 부인 쓰다꼬(蔦子)여사는 11일 하오 나까소네首相과함께 全대통령내외를 예방한후 25분간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환담하며 12일상오에는 국립묘지와 日本人학교를 시찰하고 이날하오에는 국립박물관을 관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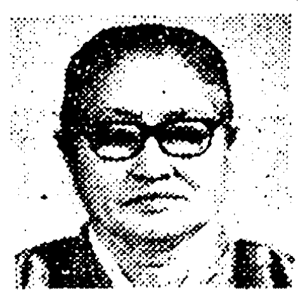
韓·佛정상회담 개최시기 協議

세송 접촉밝혀

【매나마=聯合】 클로드 세송 프랑스외상은 8일 한국과 프랑스정부간에 양국정상회담의 개최시기와 장소를 결정짓기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밝혔다.

페르시아灣지역을 순방중인 세송외상은 이날 매나마에서 聯合통신과의 회견에서 「韓·佛정상회담개최문제가 여전히 논의되고있으며 현재 양국정부관리들이 시기와 장소문제를협의중」이라고 전했다.

朴順天여사 別世


故 朴順天여사

國政자문위원이며 정계元老인 朴順天여사가 9일 밤10시30분숙환으로별세했다. 향년85세.〈관련기사2면〉

고朴여사는 구랍29일 고혈압성신부전증과 뇌졸중으로 延世大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밤서울江西구禾谷5동1111의61자택으로 옮겨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했다.

고 朴여사는 2, 4, 5, 6, 7대 국회의원을 지내는동안 民主黨 民衆黨고문과 최고위원, 民衆黨대표최고위원, 新民黨고문을 역임하는등 野黨지도자로서 對話정치의발전을위해힘써왔었다.

고朴여사는1919년3·1운동당시 1년간 복역했으며 中央安中부교장, 婦人신문사사장, 大韓부인회장, 大韓女商단장등을 두루 거치며 여성운동 지도자로 활약했었다.

유족은 3남3녀. 발인은 13일상오. 장지는 京畿도 金谷천주교묘원. 연락처 서울⑥2737.

全대통령 弔意

全斗煥대통령은 10일상오 고朴順天여사의 빈소에 咸秉春비서실장을, 고李瑄根씨의 빈소에 孫製錫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각각보내조의를표하고유족들을위로했다.

원로史學者 李瑄根씨도

故李瑄根박사

元老 史學者 霞城 李瑄根박사가 9일 밤10시30분 서울江南구論峴동35의3자택에서 숙환으로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日本 와세다(早稲田)대를 거친후 朝鮮日報編輯局長, 漢城日報主筆, 서울文理大학생처장과 서울法大學長을 역임했다. 6·25동란때는 정훈국장(육군 준장) 정훈감으로 활약했고 예편후에는 文敎長官으로 전후 폐허가된 각급학교의 재건에 힘썼다. 成均館大總長·嶺南大總長·東國大總長으로 후진을 양성했고 初代韓國精神文化研究院院長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金順貞여사와 長男 李炳暉씨(科技處 原子力委員)와 李炳晙씨(在美科學者)가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거행되며 장지는 동작동국립묘지. 연락처 서울⑭0479.〈관련기사 2면〉

벨기에 外務長官 李外務초청 來韓

틴데만스 외무장관

레오 틴데만스 벨기에외무장관이 李範錫외무장관 초청으로 10일 하오 來韓한다.〈얼굴·2면〉

틴데만스장관은 13일까지 4일간 韓國에 머물면서 全斗煥대통령을 예방하고李장관과 韓·벨기에 外相회담을 갖는다.

틴데만스장관은 또 상공·동자·체신장관등과도 회담을갖고 벨기에의 對韓전자통신분야 참여, 양국공동의 中東등 해외건설진출 확대방안등을 논의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벨기에측은 유럽의 어떤나라가 北韓을 승인하더라도 北韓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라는 확고한 對韓정책의 의지표명이있을것으로보인다.

日교과서 檢定강화

韓國관계 戰後부분

【東京=金容述특파원】 새로운 검정기준에 의해 84년도에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작업을 펴고있는 일본 문부성은 지난해 외교문제화했던 한국부분에 관한 기술에는 검정의견을 붙이지않고 필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고있는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출판勞聯이 작성한 교과서 보고서에의해 밝혀졌는데 문부성은 그대신 戰後의 현대사부분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더 엄격한 검정을하고있다고이보고서는밝혔다.

北傀 康良煜사망

【東京=聯合】 北傀부주석 康良煜이 9일 오랜투병끝에 79세로 사망했다고 北傀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康은 지난 72년부터 北傀부주석직을 맡아왔다.

餘滴

日本역사교과서가 韓·日관계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때 우리는 크게 분노했었다. 3·1운동을 「폭동」으로, 침략을 「進出」로 정당화시킨 그 망발을 민족적 자존심이 용납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곡사건의 波長은 결국 「反日」과 「排日」이란 감정적 차원을 넘어 「克日」운동으로까지 승화되었던 것이다.▼이 사건은 逆說的으로는 흐리멍텅했던 우리의 주체의식을 일깨우는데 훌륭한 자극제 구실을 했다. 그일이 아니었던들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에 온국민이 그처럼 뜨겁게 호응했을리 없었을것이다. 또 우리의 역사교과서도 그 사건을 계기로 대수술을 단행했다. 植民史觀的 殘滓가 말끔히 제거된 것은 말할것도 없고 어떤 부분은 우리의 민족주체사관적 입장에서 대담하게 뜯어고쳐졌으니 어떻게 보면 轉禍爲福인 셈이다.▼그러나 역사는 연극의 臺本일수는 없다. 마음에 안든다고 없는 일을 보탤 수도 없으며, 있는 사실을 덮어둘 수도 없다. 일본의 처사가 세계적으로 빈축을 산것도 그 我田引水的 捏造性때문이었다. 그러나 先代가 저지른 역사적 범죄행위를 2세들에게 덮어놓고 싶지 않았던 그國粹主義的 심리만은 알만도 한 일이다.▼그런데 무지와 무성의로 인해 제나라를 해외에 소개하는 관광 안내책자 하나 제대로 못만들어 나라망신을 시킨 어느 公社의 경우는 동정을 받을 여지조차 없지않을까 싶다. 이 공사가 발간한 중국어판 안내책자 「大韓民國」속의 역사誤謬사례들을 보면 기가 차다. 임진왜란때 적장 豊臣秀吉이 싸우다 전사했다는 俗說(?)은 덮어두기로 하자.▼하지만 엄연한 栗谷의 어머니 申師任堂을 退溪의 어머니라고 한것이나 멀쩡히 살아있는 英親王妃 李方子 여사를 英國에 묻혀 있다고 한 난센스는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또 佛國寺가 「百濟의 유적」이란 웬말이며 大院君이 「高宗의 아저씨」라니 어인 변고인고. 한술 더떠서 중국과 한국이 大唐이래 君臣관계라는 대목에선 참을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망발을 어쩔 셈인가. 단지 한 중국인의 번역 실수로 돌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한 일이다. 관계자들을 채찍질해서 猛省을 시키고싶다.

中間報

◇朴順天·李瑄根씨 他界. 人傑도 흐름은 물같아 가면 오지않거늘.

◇韓國복싱 劈頭부터 日本에 깨져. 「日本편用」선수 파견은 이제 그만.

◇指導職봉급 12~23%引上. 士氣가 높아지면 집안도 밝아질터.

◇文部省, 교과서에 筆者記述인정키로. 자칫하면 改惡우려.

한미 需要者를 驚愕시킨 世界的인 新管

美国 KANAFLEX社 技術導入品

排水管·一般管·電線管

THP 파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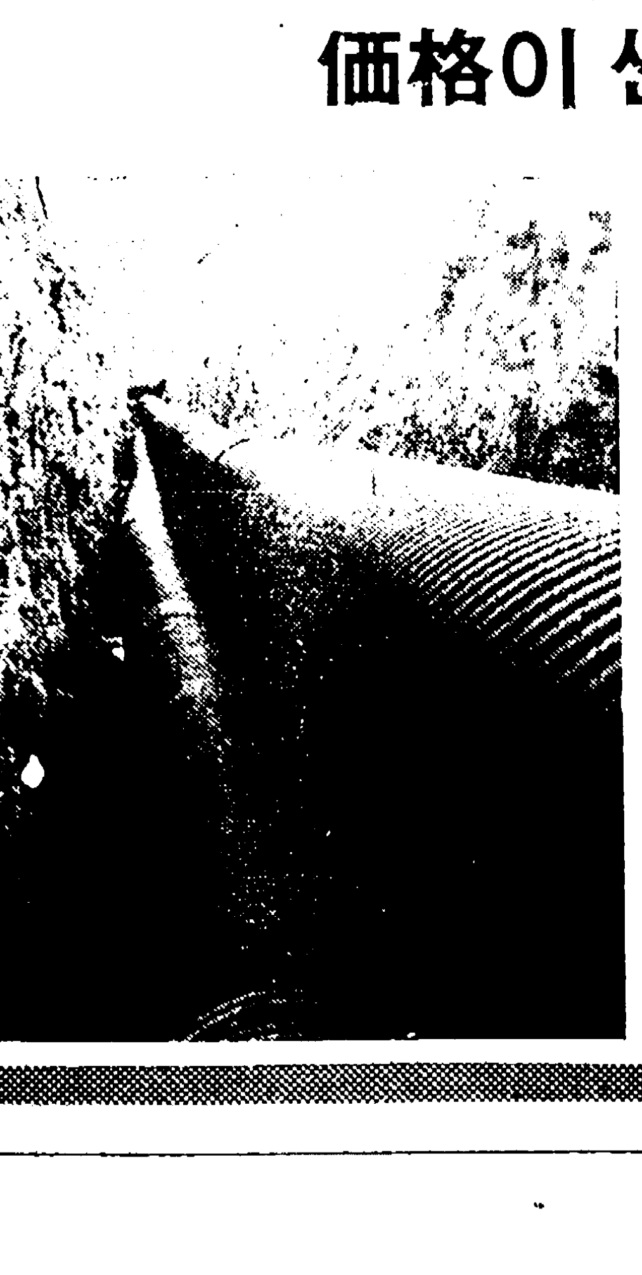
需要者의 焦点이 総集中!!
爆撓的인 需要에 感謝말씀 드립니다。

콘크리트管, PVC管으로부터 THP管으로

콘크리트管, PVC管보다
価格이 싼 THP管으로。

THP파이프 全国代理店

서울 : 세 우 사 62 7636	원주 : 한미상사 2 5881
한성상사 293 3533	청주 : 반석상사 4 2272
대진상사 566 5254	전주 : 미미상사 3 1096
부산 : 한미상사 85 1177	울산 : 중앙상사73 1684
대진상사 462 3500	대전 : 청 풍 사72 9573
대구 : 태양상사 23 0222	제주 : 한성상사 2 5568
광주 : 상양상사 55 9555	



● THP파이프의 長点
1. 高荷重의 外圧에 強함.
2. 外衝에 強하여 破壊되지 않음.
3. 軟弱地盤의 不等沈下에 잘 対応한다.
4. 管連結이 容易하고 絶対 離脱하지 않음.
5. 超軽量으로 施工性이 좋아 経費大幅絶感.
6. 耐久性이 優秀하여 寿命이 半永久的임.
7. 管内面이 平滑하여 流量이 많다.
8. 耐寒性·耐磨耗性이 優秀함.
9. 耐熱性(常用温度 70°C)이 優秀함.

韓美實業株式會社
경남 양산군 물금면 유산리 1-8
本社 : 釜山45 1811-3 서울営 : 633-3367
梁山4114-20 633-4667